

# 광주 치과산업 2200만불 투자·수출 협약 성과

## 독일 '치과 기자재박람회'서 일본 기기공장 등 유치 내년 '국립부품기술센터' 완공 등 산업 인프라 '탄탄'

광주시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중인 치과산업이 외국 투자기업을 대거 모으고 유치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내년이면 광주 첨단단지에서 전국 유일의 '치과용 소재 부품 기술센터'가 완공되는 등 치과 관련 기술·연구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국내·외 치과기업들도 광주 입성을 서두르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독일 쾰른에서 열린 2015 세계 최대 치과 기자재 박람회(IDS 2015)에 참여, 지난 12일(현지시간) 외국기업과 2200만달러 규모의 투자 및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36회째인 'IDS'는 60개국 2000여개 업체, 3만명의 치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치과 기기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광주에

서는 이번 박람회에 14개 업체가 참여했다.

광주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일본의 브레인베이스와 광주에 치과기기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500만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었으며, 멕시코의 비즈맥스사도 500만달러를 투자해 광주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 광주 지역 굿닥터스와 케이제이메디텍은 독일과 일본 업체와 각각 700만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 유치 성과는 민선 6기 들어 치과산업 성장에 주력하고 있는 데다, 탄탄한 치과 인프라 덕분이라는 게 광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광주시는 2006년 치과 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치과용 소재 부품 생산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국비 100억원 등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해 광주 첨단단지 내에 부지 3900㎡, 연면적 4312㎡ 지상 2층 규모로 생체부품 생산시설, 시험 및 평가 지원실, 기업 공동 연구 개발실 등을 갖춘 치과용 생체소재 부품 기술 지원센터를 짓는다.

국가에서 직접 주도하는 치과 관련 센터로는 전국에서 최조이며, 치과 소재 관련 국가 R&D 사업을 비롯한 치과 소재부품 생산 기업의 컨트론타워 역할 등을 맡게 된다.

시는 이번 센터 건립을 계기로 전남대와 조산대 등 지역 내 대학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광주를 전 세계의 치과산업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산대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내년까지 189억여원이 투입돼 치과용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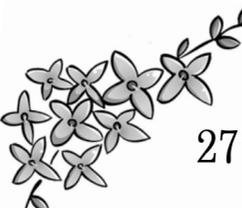
밀 장비 구축 및 장비활용, 연구 개발 등을 위한 부품지역혁신센터 지원 사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내·외 치과기업의 광주 이전도 이어지고 있다.

2013년 61개에 불과하던 광주소재 치과기업은 올해 80여개로 급증했으며, 오는 2017년 100개, 2022년 189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미국 다나카덴탈과 이탈리아 레디쉬스톤, 중국 KJ트레이딩 등 3개 기업이 입주하는 등 해외기업의 광주 입성도 줄을 잇고 있다.

양효섭 광주시 투자유치과장은 "치과기업 200개면 신규 고용 창출 1000여명,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이번 해외 투자유치를 발판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의 치과기업을 적극 유치에 광주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향긋한 봄의 향연

## 27일 '광주 봄꽃박람회'

**내달 5일까지 DJ센터 시민 참여 정원 조성**

광주시가 향긋한 꽃의 계절인 봄을 맞아 전국 최대 규모의 실내 봄꽃 박람회를 열 예정이어서 상춘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봄꽃 박람회는 준비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시민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광주시와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오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10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내에서 '광주시 자정거리'를 주제로 '2015 광주 봄꽃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광주 봄꽃박람회'는 광주시 곳곳의 소소함을 담은 정감 넘치는 정원들로 꾸며지며, 화훼 관련 신제품 및 신기술 업체가 참여하는 홍보부스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무대 공연 등도 준비중이다.

특히 이번 봄꽃박람회는 준비과정부터 운영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박람회로 정하고, 재능을 기부할 봄꽃 박람회 시민 가드너와 서포터즈 등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기로 했다.

시민 가드너는 올해 꾸며질 20여개 주제정원 중 '시민행복정원'을 직접 조성하게 되며, 서포터즈는 박람회장 내 정원의 조경과 식재를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또 박람회의 홍보와 운영, 안전분야 등도 돕게 된다.

SNS 홍보 및 관람객의 안전과 행사 운영을 보조할 전담 서포터즈가 구성되며, 축제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경운기 꽃 퍼레이드, 역량 있는 퍼포먼스 서포터즈 팀도 동시에 모집중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만18세 이상의 활기찬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또 박람회장 내 설치물 및 환경조성 등을 보조할 목공, 용접 및 조명 등 전문 기술력을 갖춘 시민 서포터즈도 모집한다. 많은 인원이 필요한 만큼 공구 등은 본인이 가져와야 하며, 자체는 박람회 사무국에서 제공한다.

이번 시민가드너 및 서포터즈 모집 마감일은 오는 17일까지이며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 봄꽃박람회 홈페이지(www.flowershow.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화 문의는 광주 봄꽃박람회 담당(611-2122)에게 하면 된다.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관계자는 "올해 봄꽃박람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시민들과 협력해 전국 최고 수준의 봄꽃박람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저소득층 아동 대상 '꿈나무 건치사업' 호응

### 광주시 치과주치의 서비스제공

광주시가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첫 시행한 치과주치의 사업 '꿈나무 건치 프로젝트'가 호응을 얻고 있다.

'꿈나무 건치 프로젝트'는 보건소와 주치의로 지정된 치과외과사 등 특화된 아동에게 ▲구강 위생관리, 올바른 칫솔질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불소 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구강질환 예방치치 ▲충치치료, 신경치료, 발치 등 구강질환 치료 등을 통해 구강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관리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저소득층 아동 1050여 명에게 5개구 보건소와 126개 치과에서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업에 참여한 1823명(아동 895명, 보호자 719명, 의료기관 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아동의 97.5%, 보호자의 99.4%, 참여 의료기관의 94.3%가 사업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에도 '꿈나무 건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시와 자치구 대표, 보건의로 관련 직능단체 대표, 치의학 관련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올해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진료 범위, 지원액 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용연동 제2수원지(1.8만㎡)가 34년 만에 개방됐다. 지난 14일 열린 개방 행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시민들이 탐방로 걷기와 자연보호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제2수원지는 연중무휴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개방된다. <광주시 제공>

## 제2수원지, 34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 연중무휴 개방...주차장 등 조성

1981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됐던 광주시 동구 용연동 제2수원지(1.8만㎡)가 34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광주시는 무등산국립공원과 함께 제2수원지를 개방하고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지난 14일 오전 10시 제2수원지에서 개방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개방식에는 윤장현 시장, 시의회 의원 및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을 비롯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광주산악연맹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탐방로

를 걸으며 자연보호활동을 펼쳤다.

윤장현 시장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34년간 개방하지 않은 제2수원지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돌려주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제2수원지는 어머니산 무등산의 젖줄인 용추계곡을 거쳐 정상부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시와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내년까지 11억원을 투자해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기존 무등산 탐방로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제2수원지 내에 유채꽃, 해바라기 등

계절별 꽃동산을 조성하고 매화나무 등을 심어 휴게 쉼터를 조성, 친환경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제2수원지는 연중무휴 개방되며, 시민 안전과 수원지 관리를 위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만 개방한다.

노원기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꽃을 벗삼아 걷는 제2수원지 탐방로 개방으로 중심사에 집중된 등산객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수원 보호 구역인 만큼 쓰레기 투기, 방뇨, 취사 등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 등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U대회조직위·(주)천안안산고속도로

### 고속도로로서 U대회 알리기 추진

#### 휴게소에 포토존 등 설치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와 (주)천안안산고속도로는 최근 광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U대회 조직위는 (주)천안안산고속도로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활용한 대회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 U대회 조직위는 천안안산고속도로가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고속도로라는 장점을 적극 이용해 관람객 유입 등을 위한 홍보 행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주)천안안산고속도로측은 앞으로 탐

천휴게소 등에 U대회 홍보 포토존을 마련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을 설치하고, 고속도로 이용객에게도 광주U대회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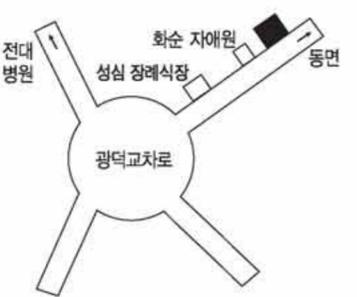
특히 대회가 폐막하는 오는 7월 14일 까지 교통 광고판(VMS)에 광주U대회를 알리는 홍보문구를 게시 및 관할 요금소 등에서는 현수막 홍보 등을 할 예정이다.

한편 천안안산고속도로는 2002년 12월 23일 개통한 이후 연간 교통량이 1600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4개의 휴게소(정안·상·하, 탄천, 이인휴게소)를 관리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원” 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33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투자가치 좋음
- 매매가 - 1억 6400만원 (일시불 조정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17평 - 20층 중 10층
- 창가, 코너, 전망좋은, 무등산 방향
- 전체 올수리, 즉시 입주
- 매매 - 5200만원
- 29평 - 20층 중 10층
- 양동 하천방향, 내부 깨끗
- 2015년 5월 입주
- 매매 - 7200만원

## 오피스텔 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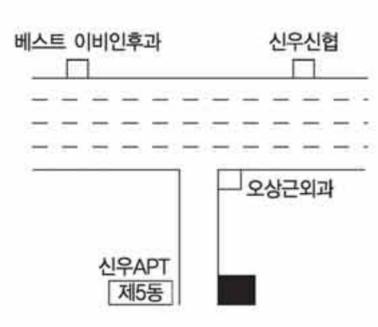
문의 H. 010-3605-5000

### 신안동 제일오피스텔

- 18평 - 14층 중 13층
- 창가, 코너, 전망좋은, 전대 방향
- 즉시 입주, 내부 깨끗
- 매매 - 3500만원

## 광전파크 “빌라”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2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 방 3, 화장실 2, 거실
- 내부 깨끗, 첫 입주, 즉시 입주
- 신우 APT 105동 옆
- 감정/시세 - 2억원 정도
- 매매 - 1억 740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교육비 / 임정활동비
-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 자본금 - 1억원 이상
- 수익률 - 연 20% 이상

(주)오천경매 H.P 010-3605-5000